

협 회 동 정

제1회 EDI 국제총회 참가 및 VAN 시찰단 귀국

본 협회가 주관한 '제1회 EDI국제 총회 참가 및 해외 VAN시찰' 참가단이 지난 20일 14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국내 우수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여 미국·일본·캐나다 등 정보통신 선진국의 생산현장과 이용상황 등을 시찰했던 이번 방문은 선진국의 동향을 직접 체험하며 국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상케 해 주는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제 1 회 EDI 국제총회 광경



▲AT & T에서 기념촬영한 방문단

한·미 정보통신업계 협의회 참가 대표단 구성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될

한미 정보통신업계 협의회에 대표단을 구성 파견한
다.

미국측 개방압력에 대한 한미 통신협상의 원만한
타결과 한미 업계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
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회의의 주요일정과
참가 예정양측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 주요일정

9월 25일 : KTA워싱턴 사무소 개설 리셉션

9월 26일 : 체신부 차관 미상공 회의소 연설

9월 27일 : 한미 업계간 협의회

(협회 회원사로 대표단 구성 설명회)

9월 28일 : TIA 측과 업계 간담회

◎ 한·미 참가 예정 대표단

한국 : 체신부 개방연구단, 주미 대사관, KISDI, KT-
A, DACOM, MTC, 현지변호사, 협회중심 전

산망 사업자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및 이
용자 그룹.

미국 : 국무성, 재무성, 상무성, NTIA, USTR, FCC, 업
계(AT&T, IBM, GTE, COLLINS, MOTOROLA
EDS, E.F.Johnson CO, Citibank 등)

상공회의소 통신무역 특별위원회 관련업계, T-
IA, ADPSO, IIA, APT, 언론 등

협회 회장단 신임장관 접견

본 협회 회장단은 지난 30일 이우재 신임 체신부
장관을 방문 접견했다.

체신부장관 접견실에서 가진 이날 방문은 정보통신
업계의 대표와 통신정책 책임자간의 상견례로써
협회에서는 한태희 (금성사 정보통신부문 사장)회장
과 정용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최병항 (쌍
용컴퓨터 사장)부회장 등이 참석 환담을 나누었다.



▲체신부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협회 회장단 (좌로부터 최병항부회장, 한태희회장, 이우재장관, 정용문부회장)